

대한민국 백년지대계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88조 9,4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조 2,318억원	취업유발효과 536,453명

공항건설, 공항운영, 항공운송, 여객여행, 접근(연결) 교통망 구축, 배후도시개발 등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VOL. 37
2021 OCTOBER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영광의 주역

육상 김기봉 원로 인터뷰

스포츠 플러스

농구

스포츠 이야기 Y

네트 위를 넘나드는
떨어지지 않는 공 Volleyball
배구를 말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발행일 2021년 10월 21일(월간, 비매품, 통권 제37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성기환,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기획·디자인 디자인대훈(T. 051-898-0330)

  **Instagram**
인스타그램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More Deeply

- 04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육상연맹 김기봉 원로
- 08 **노력의 땀방울**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
- 12 **학교체육 탐구생활**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1위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
- 16 **함께하는 생활체육**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파크골프대회 시니어부
개인전 1위
부산진클럽



More Broadly

- 20 **스페셜 리포트**
휠체어 사용자의 특수체육
- 24 **스포츠 in 과학**
운동선수의 여가교육 필요성
- 28 **구·군체육회를 가다**
해운대구체육회
- 32 **이슈 앤 포커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More Pleasantly

- 36 **스포츠 플러스**
코트 위를 화려하게 누비다
농구
- 40 **스포츠 이야기 Y**
네트 위를 넘나드는 떨어지지 않는 공 Volleyball
배구를 말하다
- 44 **카워드가 있는 건강상식**
사소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이상 증세
당신의 눈, 괜찮나요?
- 46 **문화공감**
왜 일하는가

More Closely

- 48 **BSC 뉴스**
- 52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 대학원 소식**
- 54 **구·군체육회**
- 56 **센터 info**
- 부산국민체육센터
- 북구국민체육센터
- 영도국민체육센터
-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부산실내빙상장
- 58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 59 **부산공공스포츠클럽**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달려온 육상계의 대부들 만나다

부산광역시육상연맹 김기봉 원로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Athletics

남다른 실력으로
꿈을 향해 달린다

육상을 위해 부단히 걸어오는 동안 제자들은 수십 차례 한국신기록을 기록했고, 부울경 육상 및 체육연맹과 대한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임원뿐만 아니라 세계육상연맹의 국제기술임원으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 부산을 넘어 한국과 아시아, 세계의 육상을 위한 마음으로 육상계의 초석을 마련하고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고운(孤雲) 김기봉 원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와 달리기를 잘해 매번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다는 김기봉 원로, 동네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아버지가 28세 때 전사하신 이후 가세가 기울고 장남으로서 흠어머니와 동생들을 바라볼 때면 생계와 학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치른 중학교 진학시험에 합격하며 전액 장학생으로 중학교에 갈 수 있게 된 날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세계육상연맹본부 앞
(Monaco 공국, 프랑스 동남부 지중해연안, 2014.3.3.)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업은 물론 체육에도 재능을 보인 김 원로는 울산군 중고등학교 대항 릴레이에서 늘 상위로 입상하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 참가한 울산군 육상대회에서는 100m 1위도 거머쥐었다. 육상뿐만 아니라 울산군 배구대회에 참가해 1위를 할 만큼 기본적인 체력과 운동실력이 남다른 덕분이었다.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육상 지도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초·중고등학교 때 달렸다 하면 줄곧 1위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힘이 월등히 세고 동작이 재빨랐는데 8살 때부터 집에서 황소를 몰고 풀을 먹이러 다녀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시절 미국 서적에서 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큰 꿈을 안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학과로 진학했다. 전국체육대회 대학부 시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축구와 육상 투척 종목에도 참가할 만큼 좋은 체력과 운동신경은 물론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녔을 만큼 학업에서도 뛰어난 자질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IOC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비록 처음 꿈꾸던 일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선택으로 지금의 김기봉 원로가 있을 수 있었기에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대한민국 육상계의 역사를 쓰다

김기봉 원로를 말하는 데는 뛰어난 지도력을 빼놓을 수 없다. 울산 실업고등학교를 거쳐 학성고등학교와 울산여자고등학교, 개교부터 지도한 경성대학교 육상선수들까지 그가 가르친 선수들이 잇달아 한국신기록을 갱신하며 그의 이름도 전국적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한국신기록만 35회, 부별신기록 24회, 대회신기록 114회에 더해 특히 울산여고 출신의 김순란 선수는 한국신기록을 16번이나 갱신하는 엄청난 기록도 세웠다. 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은 700회를 훨씬 웃돌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지도하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요. 그럴수록 더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매진했어요. 일본의 육상경기 월간지를 구입해서 읽기도 했고요. 석사 때 운동역학을 전공했고 박사 때 운동생리학과 스포츠의학을 전공하면서 육상의 원리를 취득하고 더욱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상은 체력과 기술이 정확히 합치해야만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수립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지요.”

한 자 한 자 손수 써내려간 당시의 기록지들과 선수별 기술과 체력에 맞게 짜인 스케줄표에는 그의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을 만큼 큰 애정에 노력과 전문성까지 더해지니 승승장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김 원로는 1978년 제8회 방콕아시아경기대회, 1979년 제3회 도쿄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육상 국가대표 코치와 1976~1980년 5회의 야마구찌대회 부산 총감독 맡으며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꽃피웠다. 그리고 13년간의 MBC 육상 해설을 비롯해 전국체육대회와 각종 선수권대회, 마라톤 대회 해설은 물론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대회 해설까지 맡으며 해설위원, 이론가로서의 활동도 이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인연을 맺고 부산체육과 육상의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특히 대한육상연맹(KAAF), 아시아육상연맹(AAA), 세계육상연맹(WA) 등의 경기규칙을 수정 및 개정하고 남·여 중학교 5종경기 채점표 작성과 대한육상연맹 혼성경기 채점표의 수정·보완 등도 김 원로의 큰 보람으로 남았다. 모든 활동은 부산을 넘어 한국과 아시아, 세계의 육상을 생각하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통령 황조근정훈장 (이명박 전 대통령, 2008.2.28.)



제25회 Barcelona 올림픽경기대회 육상해설 (MBC TV, 1992.7.~8.)



울산실업고등학교 육상선수(1968)



눈부시게 빛나는 육상의 내일을 그리다

부·울·경 육상 및 체육연맹과 대한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임원이자 세계육상연맹의 국제기술임원(ITO)으로서 실 새 없이 달려왔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김 원로가 지도하기 전까지 선수들이 전문적인 지도를 받은 경험이 없어 기초부터 가르치다 보니 발전에 한계가 있어 더 훌륭한 선수로 양성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육상은 심판이나 운의 영향이 아니라 체력과 기술이 뒷받침될 때 좋은 기록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육상연맹의 경기운영 능력과 심판원의 자질도 향상시켜야지요. 초·중·고·대학·실업팀을 활성화하고 각 시도 및 전국연맹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도 필요하고요.”

부산에 육상경기장이 없는 탓에 선수와 지도자들이 제대로 연습하기 힘들다는 점이 늘 안타깝다는 김 원로는 우수한 기록을 수립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혜택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이 걸려 있는 종목이 육상입니다. 달리고, 뛰고, 던지는 육상의 동작은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함께한다는 올림픽경기대회의 표어와도 이어지는 인간의 기본 활동이자 스포츠의 근간이지요. 기본 동작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절대 전문 종목에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육상이 발전해야 모든 스포츠가 발전하기에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익을 접하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좌우명으로, 개인과 지역을 넘어 모두와 함께하는 육상을 위해 달려온 김기봉 원로. 만 80세가 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4~5번 한 시간 이상 꾸준히 걷고 있을 만큼 한평생 육상과 함께한 그가 있기에 육상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PROFILE

주요 이력

- 경성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학과장, 교무처장, 예술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역임(1981~2008)
- 대학육상연맹 시설용기구위원(1982~1990)
- 국제이사, 국제위원장, 부회장(2001~2009)
- 한국대학육상연맹 이사(1984~1993)
- 국제육상코치협회(ITFCA) 회원(1984~현재)
- 부산체육회지도자대학 운영위원장(1991~1992)
- 부산·경남 체육학회 부회장(2000~2004)
- 울산시체육진흥연구 TF팀 위원장(2015~2018)
- 대한육상연맹 1종공인심판원(1975~현재)
- 세계육상연맹(WA) 국제기술임원(ITO) (2004~현재)

주요 수상내역

- 대통령훈장(황조근정훈장, 2008) 1회
- 국회의장표창장(효도학도, 1959) 1회
- 문교부장관상(공로상, 우수지도자상) 4회
- 경남도지사상(선행학도표창장, 우수지도자상) 2회
- 경남교육감상(우수지도자상, 공로상) 3회
- 부산시장상(우수지도자상, 공로상) 5회
- 울산시장상(공로상, 문화상) 2회
- 대한체육회장상(우승상, 제43회 전국체육대회) 1회
- 대한육상연맹회장상(공로상, 우수지도자상) 6회
- 경남·울산 육상연맹 및 각 경기연맹 회장상 (우수지도자상, 공로상) 23회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신사적인 스포츠 럭비로 새로운 길의 주인공이 되다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은 지난해 창단 10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첫 1위를 거머쥐었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매 순간 즐기며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투혼의 럭비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을 직접 만나보았다.

노 사이드(No Side) 정신의 럭비

럭비는 두 팀으로 나뉘어 공의 쟁탈, 공격, 플레이의 계속, 공의 재획득으로 경기가 펼쳐진다. 수비할 때는 태클로 공격을 막아 공을 빼앗으며, 공격에서는 격렬한 밀집 플레이가 이루어지다 보니 과격한 스포츠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서로 편 가름 없이 하나가 된다는 ‘노 사이드 정신’을 중시하는 신사적인 스포츠이다.

“럭비는 수비만 잘해도 전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것인지, 싸워서 공을 뺏을 건지 전략도 잘 세워야 하죠. 포지션은 크게 포워드(Forward)와 백스(Backs)가 있는데 포워드는 체격 조건이 좋은 학생이, 백스는 날렵하고 패스를 잘하는 학생이 많고 있어요.”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은 2010년 부산남고등학교 럭비팀이 부산체육고등학교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출발했다. 현재는 전준영 감독과 2명의 지도자(김종수, 장준영), 28명의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저희 학교는 특목고라서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 훈련 시간 확보가 가능해요. 학생 대부분이 영도중 선·후배 관계인 것도 장점이지요. 중학교 때부터 함께 운동해서 의리도 있고 관계가 돈독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저희 팀만의 응집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전준영 감독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데에는 학생들의 근성과 단합 못지않게 부산광역시럭비협회와 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 등의 꾸준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도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난 춘계럭비리그전 때는 직접 오셔서 학생들 격려도 해주시고요. 이런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보다 동료와의 소통과 단합이 중요한 럭비지만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았다. 대회가 거의 없다 보니 경기력도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보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만큼 힘찬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감격적인 첫 1위! 럭비 강팀으로 자리매김하다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은 제2회 대한럭비협회장배 전국럭비대회 1위에 이어 2021년 전국춘계럭비리그전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기대주로 떠올랐다. 특히 대한럭비협회장배 전국럭비대회는 감격적인 첫 1위였고, 럭비 강팀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다.

“학생들에게 승리하는 법을 알게 해준 의미 있는 대회였어요. 승리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느꼈을 거고요. 저희 팀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체격 조건은 평균이지만 철저하게 팀 분석을 했고, 학생들이 잘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3학년 김동훈 학생은 팀의 주장이자 패스와 킥으로 팀을 컨트롤하는 포지션인 스탠드 오프(Stand Off)를 맡고 있다. 팀을 이끌어가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힘든 훈련을 할 때는 서로 불만이 생기거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함께하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잘 지내요.”

부주장이자 후커(Hooker)를 맡고 있는 이신우 학생은 럭비가 위험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기술이 있고, 공격을 뺏아오거나 좋은 플레이로 득점하는 것이 멋있다고 했다.



“럭비는 여러 가지 동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많이 해야 해요. 그만큼 저희도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끝까지 가자는 말을 많이 해요.”

가장 인상적인 경기로는 두 학생 모두 2021년 전국춘계럭비리그전을 꼽았다. 김동훈 학생은 2위를 해서 기뻐고, 경기를 통해 킥의 효율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신우 학생은 전날까지도 좋은 결과를 위해 회의를 하고, 팀 분석을 했는데 극적인 승리를 해서 좋았다고 했다.

희생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은 럭비의 3대 정신인 인내, 희생, 협동 중에서도 희생을 자주 강조한다.

“럭비는 패스로 전진할 수 없어요. 내가 공을 들고 가야만 팀이 전진할 수 있죠. 또 상대 팀을 보고 겁을 먹으면 태클이 불가능해요. 내가 한 발 더 나아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몸으로 막아내는 희생이 있어야 해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만의 전통과 색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수비가 강한 팀이 있고, 태클을 잘하는 팀이 있듯 팀만의 뚜렷한 색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고, 주변의 기대를 받는 만큼 부담도 되겠지만 스스로를 믿고 경기해도 된다는 말을 전했다.

“평소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했으면 해요. 그리고 자신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김동훈 학생과 이신우 학생도 럭비에 대한 애정을 내치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동훈 학생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좋은 팀을 만들어갔으면 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서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고 싶다고 했다. 이신우 학생은 국가대표가 되어 더 좋은 경기를 하고 싶고, 해외에 나가고 싶은 바람을 전했다. 또 지금까지 잘해왔듯 앞으로도 협동을 요구할 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비인자종목으로도 불리는 럭비지만 경기 때마다 몸으로 부딪히고, 당당히 팀만의 자리를 만들어온 부산체육고등학교 럭비팀! 그들의 화려한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주요 수상내역

- 2021년 전국춘계럭비리그전 2위
- 2020년 대한럭비협회장배 전국럭비대회 1위
- 2019년 전국춘계럭비리그전 2위



전준영 감독



3학년 김동훈 학생



3학년 이신우 학생

Rugby

환상의 호흡으로 무대를 휘어잡다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1위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

무대에 다시 올려 퍼질 합성을 기다리며 오랜만에 연습을 시작한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더들, 에너지 가득한 그들의 몸짓이 체육관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 코로나19로 활동 기회는 많이 줄었지만 휴식기라고 생각지 않는다. 팀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치어리더들은 오늘도 높이 뛰어오르고 시원하게 팔을 뻗으며 열정을 다하고 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열정 하나로 창립 3년 만에 눈부신 성과 이뤄

신나는 음악과 춤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에서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은 탄생했다. 댄스스포츠클럽이 있는 데도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의 개설을 결정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춤과 구호, 체조가 하나 된 치어리딩은 학생들의 체력과 예술성을 기르는 데 좋은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활력 넘치는 분위기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2016년, 학생들의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이 활동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황동우 교사는 열정 하나로 소박하게 출발했던 당시를 기억한다.

“처음에는 유니폼을 맞출 여건이 안 돼 농구복을 입고 연습했어요. 크고 병병한 옷이 춤출 때 불편했을 텐데 아무도 투덜대지 않았죠. 오히려 앞날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크라운(CROWN)이란 이름을 정하고 각종 대회에서 승리의 왕관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연습에 박차를 가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호흡을 맞춘 덕에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은 처음 참가한 2016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에서 3위, 2017년 같은 대회에서 2위의 쾌거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창립 3년 만에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1위를 하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에 부산 대표로 참가했다.

빠른 성장과 눈부신 성과로 대한치어리딩협회, 학교 등에서 유니폼, 간식 등을 지원받으며 탄탄히 자리 잡았다. 10명에서 18명으로 멤버가 늘어났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도 형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회 참가를 2년 가까이 못했고 연습도 2~3주에 한 번, 인원수를 제한해 하고 있다.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은 내년부터 다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황동우 교사



박보라 교사



3학년 단장 최은영 학생



3학년 탐 박가영 학생



3학년 베이스 이연진 학생



*본 촬영은 코로나19 이전에 촬영된 사진임.

학업 스트레스 풀고 건강 챙기는데 최고의 운동

학생들은 오랜만에 만나 호흡을 맞추며 들떠 있었다. 기본 동작으로 몸을 풀고 서로의 동작을 살피며 더 나은 방향을 조언해 주기도 했다. 1~3학년이 함께 어울려 활동한 덕에 연습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멤버 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음악은 학생들의 단합에 큰 역할을 한다. 경쾌한 리듬에 맞춰 율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끼리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치어리딩은 몸의 유연성도 길러주지만 정서적 생기도 가져다준다.

단장을 맡고 있는 최은영 학생은 치어리딩을 한 뒤 체력이 한결 좋아진 것을 느낀다. 주말이면 늦잠을 잤는데 운동으로 몸을 단련시킨 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편안해졌다.

“친구들과 맘 흘리며 작품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즐거워요. 대회 준비할 때는 고난도의 치어리딩 기술과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요즘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워요.”

박가영 학생도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중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 대회 참가는 타지역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하며 자극받았던 귀한 시간이었다.

“벌써 2년 전 일이에요.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어 의미 있었어요. 후배들과는 그런 경험을 나누지 못해 섭섭해요.”

이연진 학생은 치어리딩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탐, 베이스, 스파터 등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학생의 역할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환상의 호흡을 연출할 수 있다.

“계속되는 연습에 지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연습 끝에 호흡이 착착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멤버들과 힘차게 연습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신경 쓰며 더 나은 앞날 위해 연습



“이곳에서의 경험이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치어리딩을 배우는 동시에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멤버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해 연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작품을 만들어간다. 창립부터 학생들에게 치어리딩 기술을 가르친 박보라 강사는 나날이 자연스러워지는 학생들의 율동과 밝아진 표정에 보람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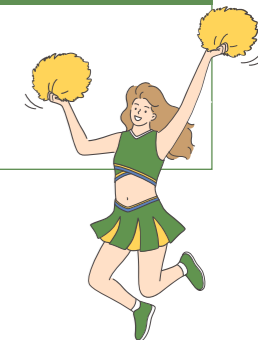
“졸업한 학생들이 종종 놀러 오곤 해요. 후배들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하죠. 이곳에서의 경험이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곡으로 참신한 안무를 짜고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지금은 안전에 신경 쓰며 연습을 위해 가끔 모일 때마다 최대치의 역량을 펼치려고 한다. 각자 집에서 연습하면서 기본 동작을 체화시키고 유연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코로나19로 한풀 꺾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의 열정은 여전하다. 조만간 학산여자중학교 치어리더들이 환상의 호흡을 맞추며 무대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 수상내역

-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1위
- 2019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부산 대표 참가
- 2018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치어리딩대회 부산 대표 참가



정경연 교장 선생님 인터뷰(MINI INTERVIEW)

학산여자중학교는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끼와 재능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경연 교장 선생님은 치어리딩, 댄스, 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클럽 운영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을 하며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치어리딩스포츠클럽은 교사와 학생의 열정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빠른 기간 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이어가며 성장을 거듭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양한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심 속 전업생활 같은 운동,
파크골프의 매력에
빠지다!

부산진클럽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파크골프대회 시니어부 개인전 1위

Park Golf

실버시대 최고의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 공원(Park)과 골프(Golf)의 합성어인 파크골프는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 공원에서 건강과 여유를 누리기에 가장 이상적인 생활체육이다. 특히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장비가 간편하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적다.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즐기는 쉽고 간편한 생활체육, 파크골프의 매력은 그야말로 도심 속 전원생활에 비유할 만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피어난 스무 명의 열정

파크골프는 가벼운 클럽(나무로 된 채) 하나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신체적 피로도가 적다는 점에서 '서민 골프'로 불린다. 최근에는 젊은 층과 어린이 입문자들도 늘고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각 지자체별로 인프라와 저변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3대가 즐기는 평생 스포츠로 자리 잡았지만, 부산진클럽의 창립 당시만 해도 파크골프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한적한 공원에서 삼삼오오 즐기는 소수의 운동 정도에만 인식했다. 부산에서 제1회 부산광역시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된 것도 2011년도였으니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지난 2013년 파크골프의 숨은 매력에 푹 빠진 스무 명 남짓한 이들이 모여 창립한 부산진클럽. 다른 지자체에 비해 파크골프 환경이 매우 열악했지만 어느덧 부산 파크골프의 메카로 불리는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동호회로 우뚝 섰다. 창립 이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펼쳐지는 각종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부산광역시장배 파크골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부담 없고 접근성 높아 "이보다 좋을 순 없어"

부산진클럽은 회원 누구나 언제든지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주례회를 비롯해 3번째 주 금요일 월례회 그리고 3개월에 한 번 클럽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처럼 여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것은 회원 대부분이 50~80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파크골프는 클럽으로 공을 쳐 잔디 위 홀에 넣는 경기 방식으로 골프와 거의 비슷하며, 경기장 규모는 일반 골프장의 20분의 1 정도이다.

강진규 회장은 "노령화사회가 되었지만 길게, 오래 그리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제한적"이라며, "파크골프를 치다보면 4명이 한 조가 되어 하루에 8천~1만 보를 걷기에 스트레스 관리와 치매 예방에도 좋고, 무엇보다 관절에 무리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파크골프는 총 36홀을 경기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할 경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걷기가 주된 운동이라 실버층에게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매력으로 70~80세 이상의 회원들은 매일같이 삼락생태공원과 화명생태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찾아 건강을 다지고 있다.

조별 경기가 이뤄지는 만큼 부산진클럽은 로테이션 조 편성과 월례회 종료 후 클럽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회원 간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동호인 대부분이 중·노년층이고 부부 회원들이 다수라는 특이점도 있다. 먼저 입문한 이들이 친구와 가족, 지인들까지 끌어왔다는 회원부터 아내가 먼저 시작했다가 남편에게 권유해 함께하게 되었다는 회원 등 가입 사연도 다양하다.

100세 건강시대, 전 세대가 즐기는 스포츠가 되길!

부산진클럽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서너 차례가량 클럽 내 순위전을 펼쳐며 기량을 다졌다. 대회 참가 횟수가 늘면서 인상적인 에피소드도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대회는 바로 수중전이다. 파크골프가 야외에서 이뤄지다 보니 폭우 속에서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클럽 내 가장 많은 대회에 참가해 1위를 거머쥔 이창희(전 부산파크골프협회 경기위원장) 회원은 단연 부산진클럽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또한 2018년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부산진클럽 소속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단체전에서 1위를 했던 일은 회원들에게 있어 지금도 짜릿한 추억이 되고 있다.

부산진클럽 강진규 회장은 “쉽고 간편한 파크골프가 일부 세대만이 아닌 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거듭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모이고 운동하는 것,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부산진클럽이 지향하는 청사진이다.



“쉽고 간편한 파크골프가 일부 세대만이 아닌 전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거듭 발전하길 바란다.”



강진규 회장



박상식 회원



인터뷰(MINI INTERVIEW)

박상식 회원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파크골프대회 시니어부 개인전 1위선수

저는 부산진클럽 창립 이듬해인 2015년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입해 활동했던 아내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알뜰결에 파크골프와 인연을 맺었지만, 지금은 파크골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2018년도에 펼쳐진 낙동회 골프대회(당시 400명 참가)의 최고기록인 최저타 103타 36홀의 기록을 보유하게 되면서 새로운 재미에 푹 빠진 것이지요. 이후 저뿐만 아니라 부산진클럽에서는 최저타 챔피언이 4명(강진규, 박상식, 이창희, 박진필 회원)이나 더 나왔는데, 평소 여러 개의 공으로 무한 반복했던 것이 유효했습니다. 변화무쌍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파크골프는 마음에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연 속에서 마치 산책하듯 즐기는 파크골프를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부산에서도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가 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기존 3곳이던 파크골프장이 현재 6곳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처럼 회원들도 늘어나고 또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구장에 나와 저처럼 건강 증진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 사용자의 특수체육

여름처럼 따스한 가을 어느 날, 특수체육에 대한 기고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해 소통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이었지만, 막상 작성하려고 보니 어디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며칠째 고민만 하다가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특수체육에서 포커스를 좁혀 우리나라의 장애인 체육에서도 소외되어왔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하 "휠체어 사용자")을 위한 특수체육으로 글을 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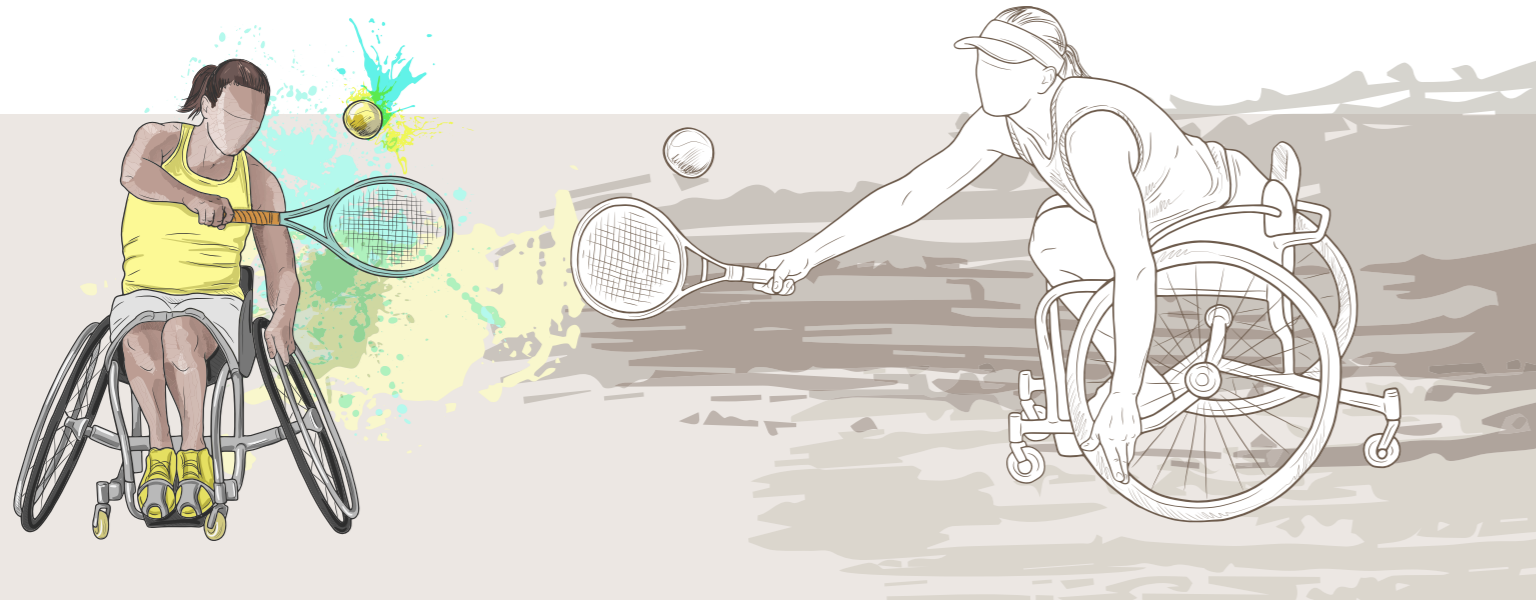
우리 결의 장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등록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5.1%인 263만 명을 넘었고 이들 중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무려 90%나 된다. 현대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애 인구의 고령화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노화는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고, 질병이나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면, 장애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글_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교수 최현희



휠체어 사용자의 운동과 신체활동

휠체어 사용자는 하지의 장애로 말미암아 자신의 하지를 대신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로, 척수장애인이 대표적이고 절단, 뇌성마비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휠체어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생활에 비해 급격하게 일상생활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능력의 저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급격한 활동능력의 감소는 일상생활 활동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감소된 활동수준은 이차적으로 근력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사회적 위축으로 인한 비활동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로 인한 기능적 작업능력의 감소는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어렵게 만들며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또한, 활동수준의 저하는 고혈압, 죽상경화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 등 각종 대사 질환과 같은 다양한 이차적인 합병증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이차적인 합병증의 이환율과 조기 발병의 증가는 조기 사망률을 명백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이 필자가 이 글의 주제로 휠체어 사용자의 특수체육을 선택한 주된 이유이다. 대표적인 휠체어 사용자인 척수장애인은 척수신경 손상 자체로 인한 건강 악화도 있지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신체 활동량의 저하가 건강 악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장애인 대비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28%나 높게 조사될 정도로 운동의 실천 여부가 각종 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노화와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고관절이나 무릎의 인공관절 치환술, 당뇨발, 퇴행성 관절염 악화 등으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HEALTH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 기간, 이동의 불편함으로 신체활동을 줄이다 보니 이로 인한 체력 저하로 치료 후에도 온전한 체력과 활동성, 그리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체활동 감소로 발생한 근육의 감소와 심폐기능의 저하가 향후 건강의 위협 요소로 작용한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일시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지금 보행이 불편하고 움직임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휠체어를 단순한 이동수단만이 아닌 운동기구로 생각하고, 침대 밖으로 나가 신체활동을,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회복기간 동안, 또는 보행 불편의 초기부터 근육 감소와 심폐기능의 저하가 없도록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상생활 활동 정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운동의 의미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욱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있어 정기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심폐능력과 근력 등 건강 관련 체력을 향상시키고, 운동기능 및 감각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며 이차적인 합병증 예방효과 역시 높음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또한 신체활동 참여는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 등의 향상을 통해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 역시 이미 입증되었다.



EXERCISE



SOCIETY

운동을 넘어 사회 속으로!

2005년 필자가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에 교수로 부임하면서 외부활동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척수장애인과 함께하는 휠체어러키 운동처방교실 운영이었다. 그 당시 사지마비를 가지고 있는 경수 손상 장애인들 대부분은 사고 후 침대에 누워있는 생활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던 분들이 대다수였기에 본인과 같은 경수 손상 장애인들이 운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구심을 나타낼 정도였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스로 휠체어러키용 휠체어를 재빠르게 조작할 수 있게 되자 그들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휠체어를 거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자신의 몸을 옮길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고,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다양한 사회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이동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간단한 조작도 손과 팔의 근력 부족으로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운전면허를 획득하고 창업과 강의를 다니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스포츠로 즐기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 취업 전선으로의 복귀를 한 모습을 보며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곤 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은 건강을 유지,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형성해 주는 매우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이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정기적인 신체활동에 참가를 원하고 있지만, 시설, 지도자, 정보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참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나 진정한 신체활동의 기쁨과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으로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하며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운동선수의 여가교육 필요성



글.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교수 박재성

최근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최고 이슈 중 하나는 학교폭력 논란으로 배구계를 뒤흔든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일 것이다. '현직 배구선수 학교 폭력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SNS에서 올라오면서 논란은 시작되었다. 작성자에 따르면 현재 유명 배구선수로 활동하고 이들에게 '학창 시절 괴롭힘과 금품 갈취, 폭언, 폭행을 당했으며 여전히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

사실 학교폭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역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후배 선수 폭행 사건과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한 선수는 훈련 도중 후배를 폭행해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이명섭(2016)에 따르면 체육계의 폭력은 상황이 다소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도자와 학생, 선배와 후배 사이에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가 남아 있어 인권 유린에 저항하기 힘들다고 한다. 체벌이나 폭력으로 대표되는 인권 침해나 전문체육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는 공공연한 비밀이거나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묵인되어 왔다(정희준,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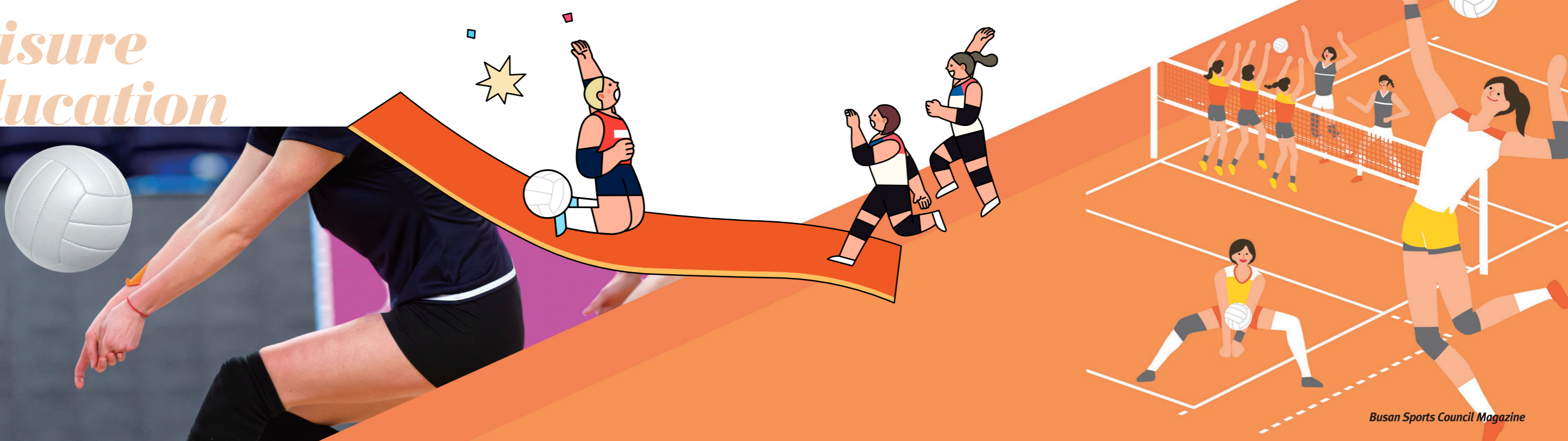
Leisure Education

웬업존의 탄생

운동선수들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소속팀에서 폭행당하기도 한다. 2021년 2월 5일 여자프로배구경기에서 최강의 상대인 흥국생명을 맞이한 GS의 김유리 선수는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수훈선수로 선정되어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를 하였다. 소속팀 감독, 코칭스태프, 통역사 모두가 김유리 선수의 인터뷰 현장에 웅기종기 모여 앉았다. 이는 수훈선수 인터뷰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유리 선수는 2010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 전체 2위로 선발된 유망주였다. 그러나 그녀의 뛰어난 실력은 선배들의 질시 대상이 되어 집중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2년 만에 배구선수 커리어를 접고 은퇴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때가 겨우 스무 살이었다. 이후 편의점 계산원으로 일하던 그녀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선배의 권유로 3년 만에 복귀했다. 그녀는 프로구단에 후보 선수로 영입되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워진 주전을 대신해 출전한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 끝에 수훈선수로 선정되었다.

김유리 선수는 자신이 신인 때 받았던 고통을 떠올리며 어린 후배 선수들에게 항상 먼저 친구처럼 다가가고 격의 없이 노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주장 완장을 차고서도 후보 선수들이 대기하는 웬업존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김유리 선수는 그냥 있으면 뭐 하나며 후보 선수들을 데리고 춤추며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후보 선수들도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몸도 굳지 않아서 교체 투입 시 컨디션 유지가 쉬우니 여러모로 좋은 일이었다. 이제 여자배구에서 당연한 일처럼 된 웬업존 응원 문화는 국가대표경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즐기면서 경기하라

최근 스포츠 전설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선수 시절 각종 경험담이 나오고 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우승과 금메달이 최선이었던 시절에 오로지 승리를 위한 노력과 인고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고도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시절은 지났고 최근 젊은 세대는 각종 대회 시상식에서 과거의 스포츠 스타에 비해 훨씬 더 당당하고 밝아졌다. 최선을 다한 결과에 수긍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끝까지 즐기면서 경기에 참가한 결과를 예찬했다. 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최고의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부합되는 행동이었다. 공정(公正)이란 '공평과 정의로움'을 뜻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운동선수들은 여가생활이나 신체 건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직과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동하기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기록과 승패를 위해 기술 개발과 정신적 긴장을 감수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정신이 필요하다. 여자축구 전가를 선수는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즐기면서 운동하라'고 후배들에게 전한다. 더불어 '재미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라고 조언했다.

“
무엇보다 즐기면서 운동하라.
재미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



여가교육의 필요성

초등학교 때부터 국가대표로 성장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운동선수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폭력 문화를 수용하게 된다. 일상생활에 폭력 문화가 스며들어 부당한 인권 침해나 폭력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최근 교육부(2021)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생 운동선수들의 인권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여가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을 발표하였다.

선수 및 지도자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오랜 기간 선수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 기술, 심리요인 외에도 생활 속 자기관리능력이 중요하다.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연습시간 이외의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지 못한다.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가 투혼, 강, 강한 정신력을 운동부 학생에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여가, 휴식, 즐거움은 배제해 왔기 때문이다(노용구, 2000). 대부분의 운동선수가 여가시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채 여가를 훈련하지 않는 시간으로 인식하며 수면, 게임, 수다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가교육은 다양한 여가와 관련된 기술, 태도, 지식의 개발과 습득에 초점을 둔 광범위한 범주의 서비스이다. 개인의 적절한 여가 생활양식의 설정과 표현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달려있다. 여가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이다. 타인과의 올바른 의사소통기술을 학습하며, 적절한 관계형성기술을 익힌다. 또한 자기표현기술의 올바른 습득으로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상이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운동선수를 그만둘 경우 많은 선수들이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렸을 때의 생활습관과 경험은 운동선수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가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여가교육은 운동선수에게 여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가에 대한 지식과 여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태도를 배양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을 넘어 세계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생활체육의 위상을 갖추다!

해운대구체육회

세계적인 도시, 천혜의 자연 인프라를 갖춘 해운대구의 위상에 걸맞는 생활체육과 체육복지를 향한 노력!
구민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과 운영으로 구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호응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해운대구체육회를 찾아 명품도시 해운대구의 저력, 생활체육의 힘을 느껴보았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음.

해운대구체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최다 지도자 등 이색 경쟁력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비전으로,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운대구체육회에는 31개 종목(정회원21, 준회원2, 인정단체8)단체와 340개 클럽(회원 16,773명)이 소속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34명의 이사진 외에도 지역 내 19명의 오피니언리더로 2016년 구성된 ‘해운대구체육정책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사회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자문 등을 통해 세계적 해양관광특구인 해운대의 체육발전 정책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군체육회 중 가장 많은 11명(일반지도자 6명, 어르신지도자 5명)의 지도자를 갖춘 것도 타 구·군체육회와는 차별화된 부분이다.

지역 특성 살린 프로그램, 전국적 호응 이끌어 내

해운대구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서핑을 배울 수 있는 ‘송정서핑아카데미’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계절 내내 서핑이 가능한 송정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송정서핑아카데미는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파급 효과는 외부 관광객들의 관심도와 강습 열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해당 프로그램은 관내에서 올해 현재까지 약 880여 명이 참가해 서핑 수업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APEC나루공원과 동백공원, 장산여명공원, 장산대천공원, 해월정 광장, 수영강변 농구코트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외생활체조교실’은 해운대구민들의 일상 활력소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계절 내내 서핑이 가능한 송정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송정서핑아카데미는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규 종목 발굴 등 해운대구체육회만의 특수성 이어갈 터

해운대구체육회는 최근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며 장산-해운대해수욕장-수영강을 연계하는 코스를 발굴 중이다. 일명 ‘산악마라톤(트레일런)’ 종목으로 이를 위해 산악마라톤협회 설립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해운대구체육회는 2019년도에 해운대구e스포츠협회와 해운대구필라테스연맹, 해운대구주짓수협회, 해운대구에어로빅합합협회, 해운대구파크골프협회를 발족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생활체육이 주춤했던 2020년도에는 해운대구건기협회와 해운대구유도회를 신규 발굴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현 상황에 맞는 신규 종목 발굴을 이어왔다.

국제도시 해운대를 보다 빛나게 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바로 국제행사이기도 한 ‘철인3종경기’의 지원이다. 해운대구체육회는 ‘해운대 트리아슬론 월드컵대회(2021.10)’의 성공적 개최를 돕는가 하면 ‘해운대구철인3종협회’ 설립을 지원하는 등 세계적인 도시, 해운대구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상철 회장 인터뷰 (MINI INTERVIEW)

해운대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해양레저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체육회는 최근 '해운대 트리아슬론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는 해운대구와 합심해 이를 세계적인 대회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오는 '2030 엑스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운대구체육회는 이러한 전문체육분야 외에도 생활체육의 뿌리인 6개의 동체육회를 중심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류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체육회장기 청소년클럽축구 스토브리그를 개최하는 등 학생체육 지원(씨름, 요트, 펜싱, 태권도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준공된 관내 최초의 테니스 인조잔디구장인 '송정테니스파크'는 대한테니스협회 공식 규격에 적합한 6면의 테니스장으로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과 동호인들의 삶의 질 개선 외에도 저희 해운대구체육회는 종목단체와 교류도 쌓고, 많은 지도자들이 발전된 기술을 습득해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해나갈 것입니다.

지도자 인터뷰(MINI INTERVIEW)

● 김해빈 지도자

해운대구체육회는 다른 구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지도가 가능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특히 송정해수욕장에서의 서핑아카데미 수업이 있어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 친구들이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한 서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박정현 지도자

코로나19로 많은 부분에서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다고 봅니다. 저 또한 홈트 관련 영상 등을 제작하면서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지만 큰 도전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1주일에 3번 30분 이상 꾸준히 영상물도 보시면서 즐겁고 재밌게 운동하셨으면 합니다.

● 서주진 지도자

저는 청소년 축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흔히 '어릴 때 운동이 평생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체육회의 송정서핑아카데미,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서초혜 지도자

해운대구체육회에는 선수 출신, 생활체육 전공 선생님들이 있어서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쟁력으로 보다 많은 구민을 찾아가 건강한 취미생활 기회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왕희주 지도자

유소년 축구를 담당하다 보니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받는 친구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명품도시 해운대의 기초체력을 더욱 건강하게 이끌겠습니다.

● 윤소윤 지도자

해운대구체육회의 활동이 곧 부산을 대표하고, 부산의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세계절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야외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재 상황은 어렵지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코로나19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 이소담 지도자

저는 유아체육활동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과정 중 1년이 끝나는 마지막 수업에 반 친구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체육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손편지를 받았을 때가 가장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입니다.

● 이진영 지도자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구민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동호인 수도 많아 30여개의 종목 관리, 생활체육 홍보 및 활동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 전은영 지도자

해운대구체육회는 11명 중 7명이 선수 출신으로, 생활체육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삶을 저희 해운대구체육회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 차효빈 지도자

저는 어르신 지도자로서 경로당이나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스트레칭과 밴드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을 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주로 듣는 편이었는데 어르신들과의 친밀도를 위해서 뉴스 기사거리도 얘기하고, 수업 전 간단한 안부를 묻던 때가 그리웁습니다. 어서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 최호근 지도자

해운대구체육회의 유소년 축구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지도법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합니다. 생활체육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고 싶은 모든 체육활동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전문선수 못지않은 실력과 체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나다순 배열)



ISSUE & FOCUS

대한민국 체육, 새로운 100년을 꿈꾸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부산을 대표해 참가한 고등부 선수들의 일정도 끝이 났다. 192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를 달려온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10월 8일(금)부터 10월 14일(목)까지 7일간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만큼 방역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모든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비록 규모나 인원은 축소되었지만 선수들의 값진 땀방울로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한 대회 속으로 들어가 보자.



National Sports Festival

● 부산의 자긍심을 높일 선수단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부산 선수단은 38개 종목에 선수 436명, 임원 344명 등 총 780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주 개최지인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일원에서 펼쳐졌다.

안전한 경기 진행을 위해 대학부와 일반부는 취소되었으며, 고등부만 개최되었다. 경기종목은 41개(정식종목 40, 시범종목 1)이며 17개 시도 19세 이하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무관중으로 결정되면서 대회 개최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치러진 첫 번째 국내종합경기대회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대회를 앞두고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부산 선수단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모두가 건강하게 경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국제스포츠 도시로서의 부산 이미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 선수단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경상북도 전국체육대회 기획단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경기를 지켜볼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대회 기간 동안 구미시민운동장 일원에서 50여 개의 홍보관을 운영했다.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볼거리 및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멋진 승부로 빛나는 결실을

코로나19로 입시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만 참가한 ‘축소 대회’에도 불구하고 부산 선수단은 명승부를 펼치며 대부분의 종목에서 예상 성적을 웃돌거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부산 메달 성적은 9월 사전 경기로 진행된 부산 대표 KT의 여자 하키 일반부 금메달도 포함되어 금메달 16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29개로 총 65개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과 에어로빅이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중에서도 에어로빅의 차지원(부산체육고등학교)이 여자 개인, 단체, 합합단체 등 3개 종목에서 1위를 하며 두드러지는 활약을 펼쳤다.



수영은 남자 평영 100m의 김민규(부산체육고등학교)와 남자 자유형 400m 권희준(부산체육고등학교), 여자 개인혼영 200m 이송은(사직고등학교), 여자 접영 100m 안유진(부산체육고등학교)이 1위를 차지했다.

남자 역도 89kg급에서는 김근현(부산체육고등학교)이 용상에서 금메달을, 여자 역도 76kg급의 김자현(서부산공업고등학교)은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자현은 용상에서 112kg, 용상과 인상 합계 196kg을 들어올렸다.

육상은 남녀 장대높이뛰기에서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부산대표로 장대높이뛰기에 참가한 남자 권용현(부산체육고등학교)은 4m 60cm, 여자 윤예린(부산체육고등학교)은 3m 20cm의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다.

금메달 행진은 이어졌다. 자전거 단체스프린트의 이찬영 외 3명(부산체육고등학교), 우수 김현균(강서고등학교), 조정 더블스컬의 류준(동아공업고등학교)과 이승준(동아공업고등학교), 여자 유도 52kg급 정나리(부산체육고등학교)도 금메달을 따며 부산 선수단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인기 구기종목인 야구는 승부 추첨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 대표로 출전한 경남고등학교는 대회 시작 전부터 금메달을 노렸지만 충청북도 세광고등학교와의 1차전이 경기 당일 내린 비로 취소된 후 추첨에서 밀렸다.

기대와 우려 속에 펼쳐진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며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쳤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 선수단이 무사히 대회를 마무리해서 기쁘다”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2022년에 치러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울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이면 워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



메달획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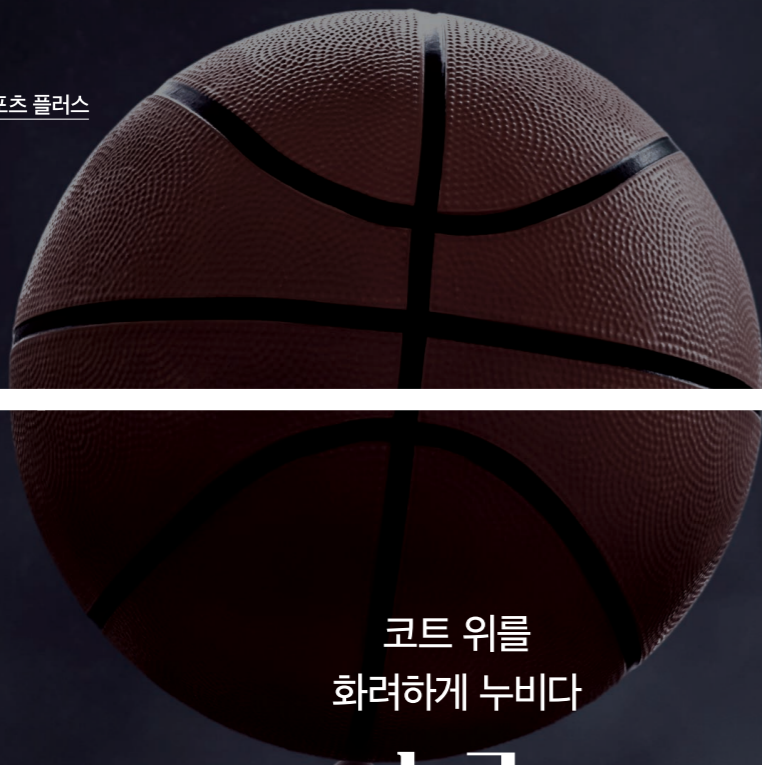
*가나다순

남자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볼링	남고	최은도	마스터즈	해운대관광고등학교
	2		남고	김민규	평영100m	부산체육고등학교
	3		남고	권희준	자유형400m	부산체육고등학교
	4	수영	여고	이송은	개인혼영200m	사직고등학교
	5		여고	안유진	접영100m	부산체육고등학교
	6		여고	차지원	에어로빅-여자 개인	부산체육고등학교
	7	에어로빅	고등	차지원 등 5명	에어로빅-단체	부산선발
	8		고등	차지원 등 3명	합합단체	부산선발
	9	역도	남고	김근현	인상89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10	우수	남고	김현균	태극권전능	강서고등학교
	11	유도	여고	정나리	52kg	삼정고등학교
	12	육상(필드)	여고	윤예린	장대높이뛰기	부산체육고등학교
	13		남고	권용현	장대높이뛰기	부산체육고등학교
	14	자전거	남고	이찬영 등 3명	단체스프린트	부산체육고등학교
	15	조정	남고	류준, 이승준	더블스컬	동아공업고등학교
16	하키	여일	강진아 등 18명	단체전	KT	

여자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레슬링	남고	이지민	G63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2		남고	노병환	F65kg	부산체육고등학교
	3		남고	이주성	F125kg	건국고등학교
	4	배드민턴	여대	조서영, 지영빈	개인복식	부산외국어대학교
	5		여대	구보은 등 7명	단체전	부산외국어대학교
	6	수영	남고	권희준	자유형200m	부산체육고등학교
	7		여고	안유진	평영50m	부산체육고등학교
	8	씨름	남고	김성국	소장급	반여고등학교
	9	양궁	여고	한주희	70m	부산체육고등학교
	10	에어로빅	고등	박찬현, 박윤	에어로빅-2인조	부산선발
	11	역도	여고	김자현	용상76kg급	서부산공업고등학교
	12		여고	김자현	합계76kg급	서부산공업고등학교
	13		남고	최윤석	인상81kg급	서부산공업고등학교
	14	요트	고등	성시유	국제레이저급	양운고등학교
	15		고등	유지현, 정진욱	국제420급	양운고등학교
	16	육상(트랙)	남고	고동욱	3000m장애	부산체육고등학교
	17	자전거	남고	권이건	스크래치	부산체육고등학교
	18	체조	여고	김서현	제3경기-도마	부산체육고등학교
	19	테니스	남고	김은재	개인단식	동래고등학교
20	펜싱	남고	천승현	사브르-개인	신도고등학교	

남자	연번	종목	부별	성명	세부종목	소속	
	1	근대5종	남고	손정욱	개인전(4종)	부산체육고등학교	
	2		남고	임동호	G82kg급	용인고등학교	
	3		남고	이주성	G97kg급	건국고등학교	
	4		여고	강서림	F62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5		여고	최재영	F76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6	복싱	남고	이한울	라이트헤비급	부산체육고등학교	
	7		남고	김정환	헤비급	부산체육고등학교	
	8	사격	여고	이연주 등 4명	공기권총-단체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9	세팍타크로	남고	이준성 등 5명	단체전	부산체육고등학교	
	10		남고	권희준 등 4명	계영800m	부산체육고등학교	
	11	수영	남고	권미주 등 4명	계영800m	부산선발	
	12		남고	김민규	평영50m	부산체육고등학교	
	13		남고	신정호	자유형200m	부산체육고등학교	
	14		남고	이송은	개인혼영200m	사직고등학교	
	15		여고	안유진 등 4명	계영400m	부산선발	
	16		역도	남고	김근현	인상89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17			남고	김근현	합계89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18	남고		윤형빈	용상61kg급	부산체육고등학교	
	19	요트	여고	김자현	인상76kg급	서부산공업고등학교	
	20		남고	박현국	국제윈드서핑	해강고등학교	
	21	유도	여고	남유리	57kg	부산체육고등학교	
	22		여고	이은비	63kg	부산체육고등학교	
	23		고등	남유리 등 11명	단체전	부산선발	
	24	자전거	남고	이찬영	1km개인독주	부산체육고등학교	
	25	조정	남고	김용현, 이승준	무타페어	동아공업고등학교	
	26	태권도	남고	이정민	-58kg급	부흥고등학교	
	27	펜싱	여고	심연우 등 4명	플리레-단체	부산체육고등학교	
	28		여고	이서현	플리레-개인	부산체육고등학교	
29	여고		한다현	에페-개인	부산체육고등학교		

출처: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코트 위를
화려하게 누비다
농구



농구는 두 팀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바스켓(Basket)에 공을 던져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이다. 구기 종목 중에서도 점수를 내는 일이 많고, 득점 이후에도 경기가 계속되다 보니 진행 속도도 빠르다. 다양한 기술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농구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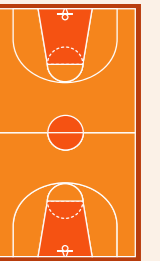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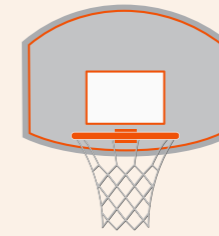
Basketball

농구의 득점

- 골(Goal)이란 라이브 된 볼이 바스켓 위로 들어가 안에 머무르거나 통과했을 때를 말한다.
- 볼의 일부가 링의 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고, 조금이라도 바스켓 안으로 기울면 들어간 것으로 본다.

농구의 플레이 (Play)

- 볼은 손으로만 플레이해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든 던지고, 패스(Pass)하고, 탭(Tap)하고, 굴리고, 드리블(Dribble) 할 수 있다.
- 선수는 볼을 들고 달려가거나, 고의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다리로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연히 다리에 닿거나, 터치되는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다.



5×5농구 (5대5농구)

각기 5명씩으로 구성된 두 팀이 펼치는 농구 경기이다. 패스와 드리블, 슈트(Shoot)을 해서 플레이를 하며, 경기 시간이 끝났을 때 득점을 많이 한 팀이 승리한다.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키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기 진행 방식

- 1 경기는 10분씩 4개의 쿼터(Quarter)로 진행되며, 주장을 포함해 참가 자격이 있는 최대 12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 2 정해진 경기 시간 안에 공을 많이 넣어야 승리하는 만큼 상대팀의 바스켓에 득점하거나, 상대팀의 득점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 3 경기 시작 전에는 적어도 20분의 준비 시간이 있어야 하며, 1쿼터는 경기를 개시하는 점프볼에서 토스된 볼이 주심의 손을 떠났을 때 시작된다.
- 4 전반전인 1, 2쿼터 사이와 후반전인 3, 4쿼터 사이 그리고 연장전을 시작하기 전 휴식 시간은 2분이다. 하프 타임(Half time)에는 15분 휴식한다.
- 5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바스켓을 서로 바꾼다.
- 6 4쿼터의 경기가 끝나고 동점일 경우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5분씩 연장전을 한다. 연장전에서는 4쿼터와 같은 바스켓을 향해 플레이를 계속한다.
- 7 쿼터, 모든 연장전의 경기는 경기 시간의 끝남을 알리는 경기 시계의 신호로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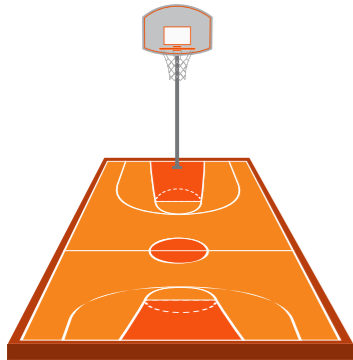


3×3농구 (3대3농구)

길거리 농구라고도 불리는 3×3농구는 2020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한 팀에 3명씩 6명만 있으면 경기를 할 수 있고, 코트도 일반 농구의 절반 크기다 보니 장소나 인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경기 진행 방식

- 1 바스켓 1개로 진행하며, 정규 경기 시간은 1피리어드(Period) 10분(공식 대회와 권장되어지는 시간)이다. 데드볼이나 자유투 중에는 시간 측정이 되지 않는다. 또 정규 경기 시간과 연장전 사이에 1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 2 동전 던지기로 어느 팀이 첫 번째 볼 소유권을 획득할지 정하며, 동전 던지기에서 승리한 팀은 경기 시작할 때 볼의 소유권을 가질지 또는 잠재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연장전을 시작할 때 소유권을 가질지 선택할 수 있다.
- 3 정규 경기는 게임 종료 신호가 울렸거나, 경기 시간 동안 한 팀이 먼저 21점을 득점했을 경우 종료된다.
- 4 동점일 경우 연장전을 하며, 연장전 시작 전에는 1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연장전은 2점을 먼저 얻는 팀이 승리한다.



5×5농구와 3×3농구 차이점



5×5농구		3×3농구
12명 엔트리 5명 참가	선수 구성	4명 엔트리 3명 참가
15m×28m	코트(가로×세로)	15m×11m
40분(10분씩 4쿼터), 연장전 5분씩 추가	경기 시간	10분(21점 선 득점 시 종료), 연장전 2점 선 득점 시 승리
24초	공격 제한 시간	12초
자유투: 1점 라인 내 슛: 2점 라인 밖 슛: 3점	득점	라인 내 슛, 자유투: 1점 라인 밖 슛: 2점
개인반칙 5개 퇴장	개인 반칙	개인반칙 퇴장 없음
쿼터 당 5개 팀 반칙으로 자유투 2개	팀 반칙	전체 7개 이상 자유투 2개 전체 10개 이상 자유투 2개, 공격권
신체접촉으로 인한 변화 시 파울	파울 기준	신체접촉에 대한 파울 규정이 다소 허용(몸싸움에 대해 다소 허용)

출처: 대한민국농구협회



네트 위를 넘나드는 떨어지지 않는 공 Volleyball 배구를 말하다

2020 도쿄올림픽경기대회 4강에 오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여자 배구가 큰 인기를 끌면서 배구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배구가 처음 생겨난 1895년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모르면 알고 싶고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배구 이야기를 살펴보자.

Volleyball



민토네트에서 발리볼로, 5명의 선수가 6명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변화하며 발전해온 배구의 시작은 창시자인 윌리엄 모건(William G. Morgan)이 189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YMCA에서 체육지도를 하던 시기로 거슬러 오른다. 모건은 창안 당시 '경기규칙 10개조를 만들었는데 여러 명이 같이 경기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으며, 첫 시범경기를 한 1896년에는 양팀 5명으로 선수를 구성해 경기하는 등 인원수에 대한 규정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확립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배드민턴과 유사해 '민토네트(Mintonette)'라 불리던 배구는 시범경기를 본 YMCA 이사 알프레드 할스테드(Alfred T. Halstead) 교수가 공이 공중에 떠 있다는 의미로 '발리볼(Volleyball)'을 제안하며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활용되다 YMCA 선교사들을 통해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으로 보급되며 초석을 쌓았다.

YMCA 선교사 엘우드 브라운(Elwood S. Brown)은 모건의 규칙을 바탕으로 배구를 필리핀의 인기종목으로 만들었다. 때문에 19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회 극동게임대회에 배구가 포함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그가 보완한 '브라운 규칙'에 따라 16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쳤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볼을 날리는 세트(Set, 토스(Toss)의 바른 표현), 스파이크(Spike), 3번 공격하는 쓰리 히트(Three Hits) 등이 만들어지며 현대 배구와 흡사한 경기가 진행됐다.

미국 YMCA와 미국 대학스포츠를 운영하는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1916년 배구의 보편적인 경기규칙 제정에 필요성을 느끼고 개선 작업을 시도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다. 1918년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6명의 선수로 경기인원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1922년 후위 선수가 전위에서 공격하는 것을 금하고 쓰리 히트와 듀스 제도를 도입, 1926년 6명 이하 경기는 몰수로 처리하는 규칙이 제정됐다. 하지만 1930년대 초반까지는 통일된 규칙 없이 다양한 형태로 경기와 대회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중 올림픽위원회(IOC)가 1949년 배구를 비올림픽 종목으로 인정하며 세계선수권대회를 열고, 1964년 도쿄올림픽경기대회에서 남녀배구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칙을 가진 종목으로 확립되었다.



Mintonette & Volleyball



서브제한, 짧지만 긴 8초의 순간

배구에서는 공격과 서브 득점 등으로 서브권을 가지고 있는 팀의 선수가 서브 로테이션(Serve Rotation)에 따라 서브를 넣는다. 이때 선수들이 곧바로 서브를 넣는 이유는 서브제한(Delay In Service) 시간이 8초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배구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농구는 8초, 같은 네트경기인 테니스도 20초의 서브제한 시간이 있는데 이는 경기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비롯됐다. 배구의 서브제한 시간은 사이드 아웃(Side out) 제도에서 5초를로 운영되다가 1999년 랠리포인트(Rally point)가 실시되면서 서브 횟수의 감소로 전체 경기시간이 당겨져 8초를로 변경되었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칙에 따라 서버는 주심의 휘슬 신호 후 8초 안에 서브를 넣어야 하며 8초가 넘을 경우 주심의 경고, 다시 위반할 시에는 상대팀에게 1점과 서브권을 내주게 된다. 주심은 이를 확인한 즉시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오른손가락을 모두 펴고 왼손 엄지와 검지, 중지 손가락을 펴서 8초를 위반을 알린다. 일부 선수가 다소 시간을 지체할 때도 있지만 현재 공식경기에서 서브제한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Delay In Service

네트 위 안테나, 인과 아웃의 경계

배구 네트의 양쪽 끝에 있는 안테나(Antennae)는 네트의 일부이자 볼의 인과 아웃을 분명하게 판정하는 기준선으로 볼 수 있다. 국제배구연맹의 규칙에 따르면 네트의 양쪽 사이드라인 윗부분에 네트 위 끝부터 아래 끝까지 너비 5cm의 흰색 천으로 된 사이드밴드를 달고, 이 사이드밴드에 길이 1.8m, 지름 약 1cm, 유연성이 있는 작은 봉 형태의 안테나를 네트 위로 80cm 올라오도록 설치한다.

안테나는 네트를 기준으로 오고가는 볼의 궤적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심판 판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눈에 띄도록 빨간색과 흰색으로 칠한다. 공이 안테나 안쪽으로 넘어가면 인으로 처리돼 점수를 획득하며, 안테나에 맞거나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아웃으로 처리돼 상대팀에게 1점을 내주게 된다.

Antennae

데드볼, 심판이 결정하는 경기 상황

배구에서 말하는 데드볼(Dead Ball)은 야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미 역시 야구와 비슷한데 일본식 영어로 잘못 사용되는 몸에 맞은 볼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용되는 본래의 의미인 심판의 판정으로 경기가 정지된 볼을 말한다. 심판은 양 손바닥을 펴고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아웃을 선언하는데, 이후 다음 서브 신호 때까지를 데드볼 상황으로 간주한다. 득점을 올리거나 사이드 아웃이 될 때 다음 서브로 다시 경기진행 상태가 되기까지의 간격을 데드볼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때 점수를 획득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가 중단되며, 볼이 아웃으로 선언되어도 경기를 할 수 없다. 바닥에 닿은 볼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완전히 나갔을 때나 코트 밖의 물체, 천장, 경기 중인 선수 외의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안테나, 로프, 지주나 사이드밴드 바깥 쪽 네트에 닿았을 때는 아웃으로 처리한다.

Dead Ball

- 출처: 마니아리포트, 김학수,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 용어 산책> 시리즈
- 2021.09.25. 기사 <배구는 왜 6명으로 경기를 할까>
 - 2021.09.24. 기사 <서브제한(Delay In Service) 시간이 8초가 된 이유>
 - 2021.09.11. 기사 <배구에서 안테나(Antennae)가 필요한 이유>
 - 2021.09.28. 기사 <배구에서 데드볼(Dead Ball)은 무슨 의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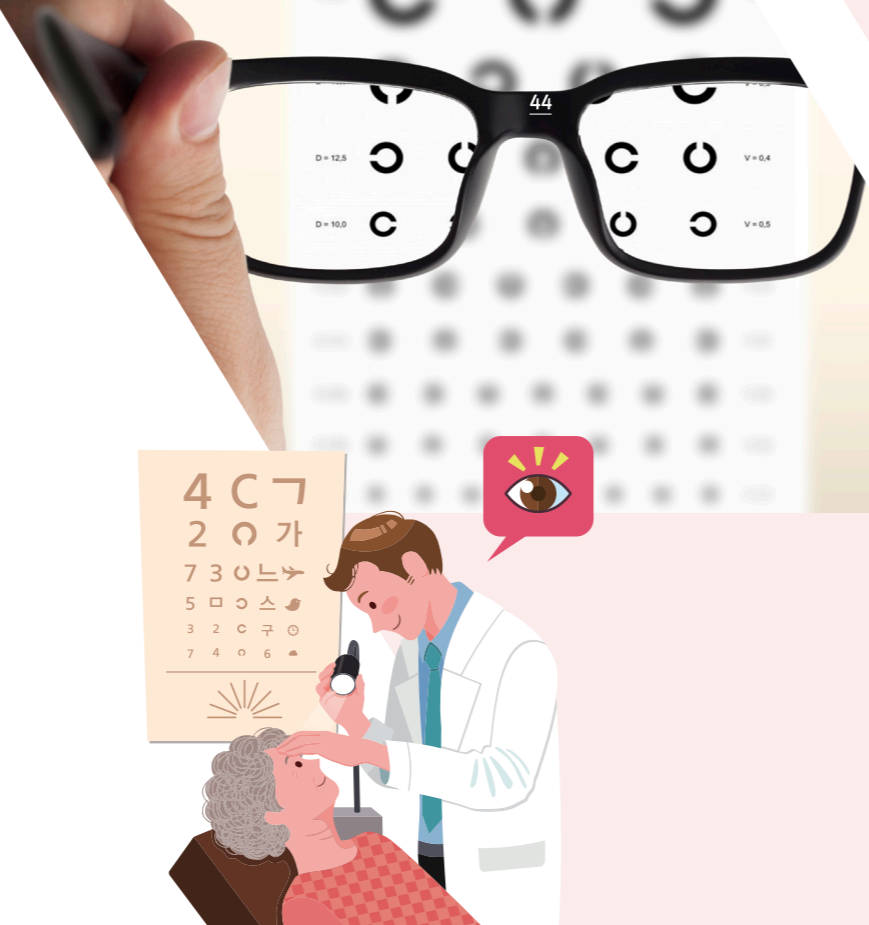
“ 배구에서 말하는 데드볼(Dead Ball)은 야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소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이상 증세

당신의 눈, 괜찮나요?

우리 눈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다. 가벼운 이상 증세라고 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때 검진 받아야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눈 질환에 대해 살펴보았다.



Eye Health

눈물이 나지 않아요!
안구건조증

눈물은 우리 눈을 부드럽게 만들고 살균작용을 한다. 안구건조증은 이러한 눈물의 주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생활습관, 노화, 주위 환경 등의 원인으로 눈물의 분비가 저하되거나 눈물이 너무 쉽게 증발해 눈 표면이 뻑뻑하게 느껴지고 자주 충혈 되는 증상을 겪는다. 현대인은 안구건조증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간다. 건조한 실내에서 오랜 시간 컴퓨터를 해야 하고 스마트폰을 빈번히 사용한다. 세면용품과 화장품의 사용, 심한 스트레스 등은 안구건조증을 유발·악화시킨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발생하기도 하며 만성 결막염·고혈압 강하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등의 장기 복용도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체크해 보아요!** 눈의 뻑뻑함과 피곤함, 잦은 충혈, 눈에 느껴지는 이물감, 바람 불면 쏟아지는 눈물

**눈앞에 점이
아른거려요!**
비문증

비문증은 눈앞에 점이나 벌레, 그림자 등이 떠다니는 증상을 겪는다. 안구는 투명한 젤리 성분의 조직인 유리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유리체는 안구의 형태를 유지시키고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한다. 유리체의 투명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사물을 명확히 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투명도는 떨어지고 혼탁이 유발된다. 비문증은 눈앞에 떠다니는 점과 그림자의 수, 크기에 변화가 없다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 여겨도 좋다. 그러나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거나 눈앞에 보이는 점이 급격히 늘어났다면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망막박리, 망막변성 등과 연관된 증상이라면 치료받지 않을 경우 시력 저하, 실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체크해 보아요!** 눈앞에 떠다니는 점과 아지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작은 벌레 모양의 그림자

**빨개진 눈,
가렵고 아파요!**
결막염

결막염은 건조한 날씨, 큰 일교차의 환절기가 되면 많은 이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눈꺼풀 안쪽과 안구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결막염은 크게 감염성과 알레르기성으로 나뉘는데 감염성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의 병원균에 의해 발병되며 알레르기성은 꽃가루, 먼지, 화장품 등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긴다. 결막염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가려움과 충혈이 있다. 대부분 알레르기성 결막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심한 통증과 출혈, 시력 저하 등이 동반된다면 감염성 결막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결막염은 손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 **체크해 보아요!** 시력 저하, 충혈, 가려움증, 심한 통증과 출혈

세상이 뿌옇게 보여요!
백내장

평소 안개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다면 백내장을 의심해야 한다. 백내장에 걸리면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노화돼 혼탁 증상을 겪는다. 선천성 백내장도 있지만 노화, 외상, 눈 속 염증 등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성 백내장이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0세 이후 환자에게 나타나는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흔하며 시력 저하 이외에 별다른 통증은 없다. 그러나 백내장에 의한 합병증으로 녹내장과 같은 다른 질환이 생기면 통증이 있기도 하다. 눈부심, 한 눈씩 봤을 때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백내장이 많은 부분 진행되면 치료가 힘들 수 있기에 4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다.

★ **체크해 보아요!** 시력 저하, 눈부심,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 색상 왜곡

출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2020년 10월호, '건강의 창' 눈 제대로 살펴보기

일의 본질에 다가가는 순간 삶의 가치는 높아진다

우리 모두 일하며 살아가지만 익숙한 일상 속에서 왜 일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는 드물다. 여기, 일의 가치에 대해 본질적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일상을 살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 있다. 일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수행 도구로 바라보는 「왜 일하는가」의 저자 이나모리 가즈오의 조언에 귀 기울여 보자.

「왜 일하는가」



● **일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행 도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성공 신화는 미약하게 시작됐다. 그는 지방의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와 교수 추천으로 부도 직전의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동기 대부분이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지만 그는 한자리에 서 묵묵히 일에 매진했다. 그리고 스물일곱 살이 되던 해 교토 세라믹(현 교세라)을 설립해 연매출 16조 원, 6만 9,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꾸준함과 성실함은 그를 존경받는 경영자로 우뚝 서게 했다.

그는 진정성을 담아 오랜 시간 일에 매진했을 때 내면은 단단해지고 인격은 높아진다고 말한다. 탐욕과 불안을 떨쳐내고 오로지 일에 집중하는 순간 일은 수행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일하는가」는 적은 노동력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의 방법론이 아닌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강조한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닦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일한다”라는 그의 말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는 기본에 충실하고 나아가 완벽을 추구하라고 조언한다. “낙관적으로 구상하고, 비관적으로 계획하고, 다시 낙관적으로 실행하라”라는



저자 이나모리 가즈오 출판사 다산북스

Composition of Books



그의 사상을 쫓다 보면 그가 업무를 수행할 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큰 관심을 기울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영세기업이었던 교세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일을 향한 그의 열정과 세심함 덕이었다.

● **글로벌 기업 키운 저자의 성공 노하우**

「왜 일하는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총 6장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각 장에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다사다난했던 인생과 성공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명언이 들어 있다. 6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한 그답게 일을 바라보는 안목과 관점은 독창적이면서 깊이 있다. 일을 향한 적극성과 치밀함, 노력의 지속성과 창조성은 그가 책 전반에 걸쳐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이다. “소용돌이를 피하지 말고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뛰어들어라”, “알 수 없는 5년 후가 아닌, 오늘 하루와 승부하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 무엇보다 더 좋아해보라. 그 일에 흠뻑 빠져보라” 등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조언과 만날 수 있다. 지금 성과에 대한 압박과 불안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왜 일하는가」는 출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해가 되면 직원들에게 반드시 선물하는 책’, ‘기업인들의 서평이 가장 많은 책’ 등 수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직장인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리가 잇고 사는 일의 가치를 6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한 거장이 감동적인 경험담으로 꼼꼼히 짚어주기 때문이다. 2021년에 새롭게 나온 「왜 일하는가」 한국어판은 최신 개정판으로 새로운 디자인은 물론 본문의 번역을 손보고 윤문해 가독성을 높였다.

저녁이면 온몸이 노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지만 뭔지 모를 공허함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이 책을 통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 일이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숭고한 행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프롤로그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일 더 행복한 나를 꿈꾼다면

1장 왜 일하는가

2장 일을 사랑하는가

3장 무엇을 꿈꾸는가

4장 노력을 지속하는가

5장 현재에 만족하는가

6장 창조적으로 일하는가

에필로그

내일을 여는 인생 방정식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세요!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제공하는 양질의 운동 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의 제한이 많아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동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민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5일(화) 부터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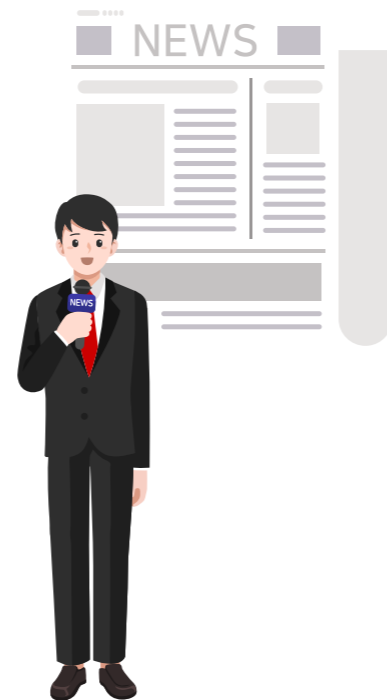
각 지역 대표 명소를 배경으로 다양한 종목의 운동 방법 소개

코로나19 이후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어려워졌다. 가족, 친구와의 간단한 만남조차 눈치 보이는 시기, 영상과 온라인 매체를 백분 활용한다면 대면 만남으로 인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을 확보하며 지역 구·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언택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부산광역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여가 지도활동 서비스를 이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구·군민은 집에서 편안히 영상을 감상하며 지도자의 세심한 가르침을 따라가면 된다. 운동을 생활화 하면서 몸과 마음의 활기를 얻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부산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SPORTS NEWS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를 배경으로 프로그램이 펼쳐지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잠시나마 집콕 생활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콘텐츠도 다양하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 방법을 소개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유튜브 채널과 LG헬로비전 방송에서 시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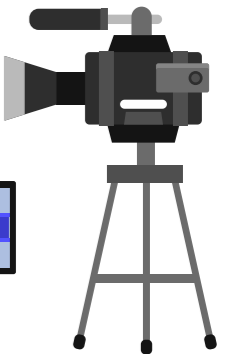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이 궁금하다면 부산광역시체육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자. ‘찾아가는 스포츠복지’는 지난 10월 5일(화) 오전 10시 40분 ‘부산진구체육회 편’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다. 또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0분에 구·군체육회별로 16회 영상이 방영될 예정이다. LG헬로비전 방송을 통해서도 ‘찾아가는 스포츠복지’를 만나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며 다짐과 계획을 전했다.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 방영매체 | 부산광역시체육회 유튜브 채널, LG헬로비전
- 방영기간 | 10월 5일부터 16회
- 방영시간 |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전 10시 40분



부산광역시체육회-한국거래소 초·중학교 학생선수 장학금 전달식 성료



SPORTS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9월 27일(월)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초·중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올해 지원하는 3억 원의 장학금 중 첫 번째로 한국거래소의 후원을 받아 체육장학생을 선발한 뒤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생으로는 25개교에서 활동하는 검도, 농구 등 15개 종목의 30명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선발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1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울창한 숲을 이루었듯이 나눔을 통해 자본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미래를 가꾸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체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선수 장학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한국거래소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장학금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꿈과 희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SPORTS NEWS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6일(수)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과 한국해양대학교 도덕희 총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가 보유한 정보와 콘텐츠를 최대한 공유 및 활용해 부산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해양레저 문화와 스포츠산업 발전 및 확대에 대한 협력, 체육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 우수인재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력 등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단체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스포츠, 문화, 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등 해양 분야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페이지는 부산의 체육 관련학과-대학원의 교육을 시민 및 체육인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일하며 공부하는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2022년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 또는 특성화 재직자(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 나이 상관 없음) 누구에게나 새로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내 시니어운동처방학과와 스포츠레저산업학과가 개설되었다. 수능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하여 21C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강관리 전문가 양성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스포츠레저산업 전문가를 양성한다. 시니어운동처방학과와 스포츠레저산업학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레저의 경험과 운동처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건강 100세 시대가 요구하는 실무형 운동 전문가 양성

- ◆ **학과안내** | 시니어운동처방학과는 노화에 따른 성인병 및 퇴행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건강 100세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둔 현장적용적 학과이다.
- ◆ **교육목표** | 노화에 따른 질병 및 손상과 개인의 평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학문적, 직업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운동처방과 재활, 생애주기별 질병 건강관리의 특성화된 21C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교육과정** | 노인 특성의 이해, 운동 메커니즘, 신체능력 측정, 질환별 맞춤형 운동처방 등 건강 증진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2020년 실무 중심 교육을 위해 실무현장과 동일한 운동처방 IFS(In Field School) 공간 구축으로 치매 예방 및 인지 기능 향상, 생애주기별, 질환별 맞춤형 운동 기술 및 지도를 현장 실무형 교육으로 제공한다.
- ◆ **진로 및 취업** | 노인스포츠지도사, 운동처방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평생교육지도사, 걷기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로서 취업과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센터, 필라테스 등 스포츠 계열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로서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 스포츠레저 인재 양성

- ◆ **학과안내** | 스포츠레저산업학과는 미래 스포츠레저산업의 필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다.
- ◆ **교육목표** | 스포츠레저산업은 ICT 신기술과의 융복합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대표적인 산업 분야이며, 이에 본 과는 미래 스포츠레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교육과정** |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스포츠 빅데이터, 스포츠 가상현실, 스포츠 미디어콘텐츠 등의 수업을 통해 스포츠레저 ICT 융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산학연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스포츠레저 경영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학교, 클럽, 시설과의 연계 수업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레저 지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 ◆ **진로 및 취업** | 스포츠레저산업학과는 스포츠레저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스포츠 경영관리사,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스포츠 제품 개발 및 디자인 전문가, 스포츠 미디어 및 콘텐츠 개발 전문가 등 다양한 스포츠레저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2022학년도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스포츠레저산업학과 신입생 모집 안내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은 2022학년도 시니어운동처방학과와 스포츠레저산업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 **시니어운동처방학과** : 21C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건강관리 전문가 양성
 - **스포츠레저산업학과**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스포츠레저산업 전문가 양성
- * 등록금 걱정 없이 4년 동안 장학금 최대 100% 지원!

1. 지원자격 및 선발 반영비율

전형유형	지원자격	반영비율(%)
평생학습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의 동등 학력을 가진 입학일 기준, 만 30세 이상 누구나 가능	면접(60) + 학생생활기록부(40)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군 의무 복무기간 재직기간에 포함	면접(40) + 재직경력(60)

2.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및 주요사항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18:00까지
	서류제출	2021. 12. 30.(목) ~ 2022. 1. 6.(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면접고사	평생학습자	2022. 1. 8.(토)
	특성화고졸재직자	2022. 1. 8.(토)
합격자 발표		2022. 2. 8.(화)
등록금 납부		2022. 2. 9.(수) ~ 11.(금) 16:00.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

3. 전형유형별 제출서류

전형유형	제출서류		비고	
평생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기록부 1부 -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출신자 중에서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전형	필수	전체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및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필수서류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재직기간 명시)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
		창업,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력 인정을 위한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지방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명) 1부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사실증명서 1부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해당자
		1차 산업 종사자 (농업, 수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력 인정을 위한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지방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증명서 1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행한 서류)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또는 경력증명서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경력 인정을 위한 병역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지방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1부 	해당자	

※증빙서류는 2021. 12. 20.(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에 추가로 기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행정실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행정팀 TEL: 051-320-4890/4893

구·군체육회

중구체육회



어린이·청소년 체련교실 하계캠프 개최

중구체육회는 지난 9월 26일(일) 김해 가야테마파크 및 김해 일원에서 '2021 어린이·청소년 체련교실 하계 캠프'를 진행했다. 중구민 어린이·청소년 30명과 체육회 직원 4명 총 34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동구체육회



2021년 유아체육사업 지원

동구체육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모음유치원과 연계해 유아체육사업을 지원했다. 아이들은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밸런스, 민첩성, 유연성, 순발력, 평형성을 기르고 향상시킬 수 있었다. 동구체육회는 유아체육사업으로 아이들의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영도구체육회



영도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 선수단 입상 축하 격려

영도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은 지난 9월 6일(월)부터 6일간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경기장에서 개최된 '2021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 참가했다. 대회 결과 개인단식 1위와 단체전 3위를 했다. 영도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은 지난 대회 첫 1위에 이어 개인전까지 1위를 거머쥐었다.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9월 16일(목) 영도구청 제1소회의실에서 김철훈 영도구청장, 정연홍 영도구체육회 사무국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도구를 널리 알리고 1위를 한 영도구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 감독 및 5명의 선수단을 축하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2차 자체교육 실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9월 27일(월) 오전 10시 초연근린공원체육관 1층 웰빙교실에서 생활체육지도자 2차 자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은주 교수를 초빙해 부산진구체육회 지도자 8명과 스포츠 조직의 윤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쌓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동래구체육회



스텝박스 영상 제작 홍보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9월 15일(수) 동래구체육회 유튜브 채널에 '동래구체육회 지도자와 함께하는 스텝박스'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했다. 프로그램은 스텝박스를 이용한 다양한 동작으로 유산소 및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출연자는 동래구체육회 강민경, 진혜진, 남나라, 김유송, 황애자, 신수빈 지도자이다.

*동래구체육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RTxohq4dJZI>

남구체육회



2021년 제1차 인사위원회 개최

남구체육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월) 총 5명의 인사위원 중 4명이 참석하여 남구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인사위원회를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고했고, 부산광역시남구체육회 각종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방법을 심의·의결했다.

금정구체육회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자체교육 실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9월 29일(수) 안희주바다아트센터에서 '2021년 금정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자체교육'을 진행했다. 필라테스 소도구 운동 및 지도법으로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필라테스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 수업과 필라테스의 기본자세부터 폼롤러, 씨클링, 미니볼 등 여러 가지 소도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방법을 배웠다.

강서구체육회



회원종목 정회원단체 연석회의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9월 17일(금)부터 10월 14일(목)까지 강서문화원 4층 강당에서 총 8차례에 나눠 체육회장, 구청장, 종목협회 회장, 사무장, 클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회원종목 정회원단체(20종목)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매회 개최하는 회원종목 정회원단체 연석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 법인등기 진행과정, 2021년 하반기 주요추진사업 계획 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관련(안) 보고 후 구청장, 체육회장님과 질의응답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종목협회에서 요구하는 체육활동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

연제구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찾아가는 스포츠복지' 인터뷰 촬영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9월 11일(토) 오후 3시 해운대 헬로티비 방송국을 방문해 '찾아가는 스포츠복지'라는 주제로 촬영한 요가영상에 대해 인터뷰했다. 영상에 들어갈 자세한 설명과 주의사항,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고 연제구와 연제구체육회를 홍보하는 등 장시간에 걸쳐 녹화를 마무리했다.

사상구체육회



학교운동부 및 유소년체육 육성지원금 전달

사상구체육회는 지난 9월 10일(금) 학교운동부 및 유소년체육 육성지원금을 초·중학교 9개소, 스포츠클럽 2개소에 전달을 했다. 또한, 3월부터 관내 10곳의 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체육지원활동(8곳) 및 백세 운동교실(2곳)을 개인방역수칙을 확실하게 지키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

01. 2021년 법정 의무교육 실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 17일(금)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확립 및 성희롱 피해 시 상황 대처법 등과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편견 제거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평등한 사업장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02. 2022년 꿈나무체능단 신입단원 모집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0월 16일(토) '2022년 꿈나무체능단 신입단원 공개추첨'을 진행했다. 2022년도 꿈나무체능단은 여러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지닌 다양한 개성과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건전한 인격체로서 기초를 다지고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반유치원에서 진행되는 누리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타 유치원과는 차별화되는 수영, 태권도, 발레, 역사동화, 국악, 바둑 등을 실시한다.



북구국민체육센터



01. 어린이 수영 토요일그룹레슨반 운영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0월 2일(토)부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그룹레슨반을 운영한다. 자유형, 배영, 평영을 포함한 수준별 맞춤 수업으로 매주 토요일 10시, 월 4회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 향상, 지구력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02. 노후된 헬스기구 교체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북구의회 회의에서 헬스장 체육시설물 안전에 대해 협의한 결과 헬스장 러닝머신 교체 예산을 확보, 노후화된 러닝머신 교체공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러닝머신으로 인한 낙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앞으로도 회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헬스기구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영도국민체육센터

01. 2021년 학교로 찾아가는 초등 생존수영 수업 진행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부터 부산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존수영수업은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업과 올바른 심폐소생술, 제세동기사용법, 재난안전사고 및 수상안전사고 예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구서초등학교는 교육을 완료했으며, 금명초등학교는 교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지도자의 수준 높은 수업으로 학생들과 학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2. 생활스포츠지도자 대상 현장실습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9월 13일(월)부터 부경대학교 수영, 보디빌딩, 골프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실습을 통해 실무사례를 위주로 해당 종목별 지도자에게 지도법을 배웠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01. 생활스포츠지도사 현장실습 진행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부경대학교 생활체육연수원과 협약해 생활스포츠지도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대상자들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연수의 마지막 관문인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 지도자에게 여러 교수법을 배우고 실제 수업에도 참가하여 회원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부산실내빙상장

0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부산실내빙상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소규모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02. 교육청과 함께하는 빙상장 체험 프로그램 재개

부산실내빙상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교육청과 함께하는 빙상장 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부산 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빙상종목에 도전하는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경험을 제공했다. 스케이트는 아이들의 체력향상 및 유연성 강화에 도움을 주며, 안전한 단체활동을 위해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부산선수단 선전

부산광역시 장애학생 선수들이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스피드 스켈러, 조정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올해 개최되는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목별 분산 개최 및 일부 종목은 비대면 대회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월)부터 14일(화)까지 부산장애인역도훈련장에서 개최된 스피드 스켈러 대회에서는 남자 개인전 SL6(중등부)에서 주현택(만덕중)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어서 열린 남자 단체전 SL6(중고등부) 동메달(만덕중, 영산고), 혼성 단체전 SL6(중등부) 동메달(만덕중), 혼성 단체전 SL6(고등부) 동메달(영산고)을 획득했다.

이어서 9월 15일(수)부터 16일(목)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조정 대회는 남자 500m 개인전(시각/초등부) 금메달 오종민(부산맹학교), 남자 500m 개인전(시각/중등부) 금메달 최태현(부산맹학교), 혼성 500m 2인조(시각/중등부) 금메달 최태현, 김지희(부산맹학교) 선수가 금메달 3개를 획득했으며, 최태현 선수는 2관왕에 올랐다. 이외에도 남자 500m 개인전(시각/중등부) 은메달 김현하(부산맹학교), 여자 500m 개인전(시각/초등부) 동메달 김지희(부산맹학교) 선수가 메달을 획득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김철우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 제한 등의 상황에서도 열심히 연습해 최선의 결과를 내어준 우리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꿈나무 선수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최선의 경기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산공공스포츠클럽

거점스포츠클럽

체조 꿈나무 선수 선발

지난 9월 23일(목) 부산거점스포츠클럽에서 기량을 연마 중인 정미르(성전초 3학년) 선수, 이윤아(광남초 2학년) 선수가 대한체조협회 꿈나무 선수에 선발됐다. 꿈나무 선수는 대한체조협회에서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가운데 기량이 우수한 선수를 발굴, 지원하는 제도다. 대한체조협회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표를 선발한다. 이 제도는 같은 연령대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를 중심으로 차세대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국가대표 상비군과 유사한 시스템이다.

이번 꿈나무 선수 선발은 코로나19 때문에 전국대회를 열지 못한 이유로 대한체조협회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수가 과제하는 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평가했다.

정미르 선수는 2017년 거점스포츠클럽 유아반으로 체조에 입문해 2019년부터 선수 등록을 한 뒤 전문선수로 활동 중이다. 2019년 제35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조대회에서 입상(개인종합 1위, 도마 1위, 평균대 3위)하는 등 출중한 기량으로 지난해 처음 꿈나무 선수에 뽑혔다. 올해 처음 꿈나무 선수에 발탁된 이윤아 선수는 지난해 거점스포츠클럽 초등반으로 체조를 시작해 선수 등록 후 전문선수로 활동 중이다.

부산거점스포츠클럽은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가 취소되고 꿈나무 선수 합동훈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열릴 대회를 목표로 매일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33회 부산시협회장배 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 제패

지난 9월 11일(토)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제33회 부산광역시협회장배 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거점스포츠클럽에서 펜싱 전문선수반 5명이 출전하여 남중부 단체전 1위, 개인전 1, 2, 3위를 모두 차지했다. 코로나19로 2021년에는 대회가 많이 개최되지 못했지만 2022년에는 대회가 개최돼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에서는 9월 6일(월)부터 12월까지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한다. 영도구 내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 2명이 근로한다.

부산영도구스포츠클럽 회장은 지역 대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취업 전 직장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진로선택의 용이함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모든 프리미엄 피자

방문 포장 시
40% 할인

얼티밋 넘쳐 흐르는 치즈를
포켓에 콕콕 담았다!
치즈포켓



진영푸드주식회사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VR 스카이스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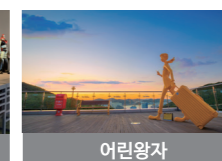
케이블카 뮤지엄



다이노 어드벤처



파티드 (피규어) 갤러리



어린이왕자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룡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주거문화 및 레저산업을 선도하고 교육보국을 실천하는 신용의 기업

동원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동원이 「DREAM WORK」 브랜드로 공유오피스 사업을 함께합니다.



주동원개발
www.dongwonapt.co.kr

부산 북항 D2 블럭 *the Gate Dongwon*

기업신용평가 AAA등급
코스닥 상장 우량기업

국내 최초 주택산업분야
금탑산업훈장 수훈

포브스 선정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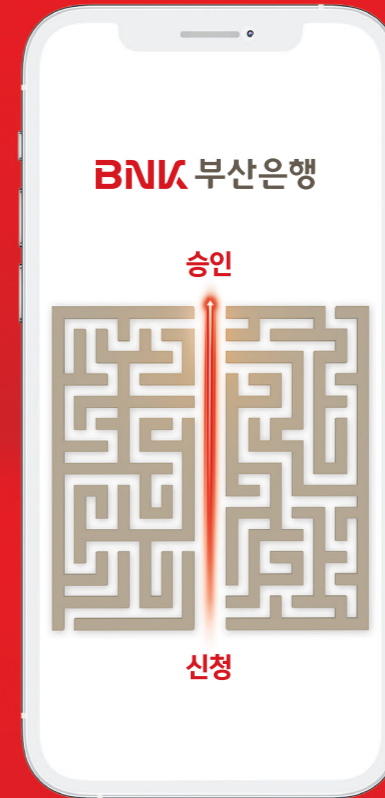
주택건설 44년
7만여세대 공급

동원개발그룹



대표이사 / 회장 **장복만**

신용대출
ONE하는대로



부산은행
ONE신용대출

고객이 고민하던 시대는 지났다
미로처럼 복잡한 대출을 한 번에
직장인도, 공무원도, 전문직도, 자영업자도
하나의 상품에서 답을 찾다

ONE신용대출



- 복잡한 대출신청을 심플하게**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대출 결과 바로 확인
-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BEST&MUST**
머신러닝 기법이 나의 성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한도와 금리 추천
- 옴니채널 프로세스**
영업점이든 모바일이든 채널이 바뀌어도
끊김 없이 이어가는 신청 절차

· ONE신용대출은 개별 대출상품이 아닌 상품 조건 제공을 위해 구성된 상품 집합체를 의미하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하시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알아두실 사항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자를 부당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율을 이항할 경우 대출금리+2.0%
- 납부예정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반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 상태 및 저의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대출한도의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242(심의일자 2021.03.17) 유효기간 2021.03.17 ~ 2021.12.31